



천안의 광덕산 아래 자리잡고 있는 '호두마을'은 위빠사나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두마을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마른 논에는 가을의 따가운 햇살이 누룻누룻 익어가는 나락 위로 쏟아져 내리고, 길가의 호두나무에는 누르스름한 호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수확을 앞두고 있는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세파에 찌든 마음은 한결 순화되는 느낌이다.

호두마을은 예로부터 '만복사'라는 큰 가람이 있어 수많은 수행자가 모여 수도하던 곳이었다. 그 자리를 이어 호두마을이 자리 잡고 있으니 평도 내력 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정성 들여 가꾸어 온 수행도량임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다. 12만㎡ 가량의 대지 위에 수행공간인 대법당과 소법당, 수행자들의 숙소와 공양간 그리고 휴으로 지어진 4채의 토굴이 있다. 그리고 경행(經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된 아름다운 오솔길이 있다. 이곳의 장점은 남방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위빠사나의 참맛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위빠사나 수행의 발원지답게 연간 이용자만 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프랑스에 탄넛한 스님이 세운 명상수련센터 '자두마을(플립 빌리지)'이 있다면 한국에는 '호두마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호두마을 설립자인 손병욱씨는 밀짚모자를 쓰고 화단을 손보고 있었다. 호두마을에서 그의 공식 직함은 고문(顧問)이다. 호두마을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는 위빠사나 명상법을 국내에 널리 알려 모든 사람이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손 고문의 눈빛은 은화하면서도 수행자에게서 느껴지는 예리함도 갖추고 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인천에서 일 년에 100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린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호두마을의 일꾼을 자처하여 불복하니처럼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 손 고문은 이십대 때 가슴 가득 차오르는 구도심을 억누를 길 잃어 통도사로 출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호두마을을 세운 것도 세세생생 불가로부터 빛진 것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손 고문은 '업에 대한 법칙' 만이라도 바로 이해한다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을 거쳐 위빠사나 수행으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행한 수행의 방법인데 그것에 '좋다 나쁘다'는 어떠한 토를 다는 것은

불법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 깨달으셨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는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부처님 정법을 훼손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부처님을 닮고 싶어 하고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면서 부처님께서 수행한 그 방법을 외면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손 고문의 말은 이어졌다. <대내처경>에 보면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을 건너기 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해탈하기 위한, 오

직 한 길(一乘道)이 사념처 위빠사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알고부터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놓아버림의 행복'을 맛본 것이다. 손 고문은 사업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남달라서 그가 손대는 것은 모두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는 20년 넘게 돈과 출세를 구하며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처럼

달렸다. 자신이 목표로 한 도달점에 이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오히려 허망감이 밀려왔다. 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사의 수익금을 사회

에 환원하기로 했고 회사 내 전담직원까지 두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불우한 가정 120가구를 매달 지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위빠사나를 만나게 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에 자아나 실체란 존재하지 않을 것 같게 되었지요. 지혜가 없는 마음은 나를 기만할

때였다. 자신이 목표로 한 도달점에 이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오히려 허망감이 밀려왔다. 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사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회사 내 전담직원까지 두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불우한 가정 120가구를 매달 지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위빠사나를 만나게 됐다.

것이며, 지금처럼 끊임없이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행복과 만족이 아닌 영원하고 안전한 행복을 누리려고 싶었지요. 귀하다고 여겼던 돈과 명예도 벗어놓고 가족을 떠나 마흔 다섯에 이곳 호두마을로 왔어요."

그야말로 잘나가던 회사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에게 '재산 상속이 없을 것'이라고 공포했다고 하니, 그는 이미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을 일순간에 버리고 수행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라면 어떤 행태가 되었든 그것이 바로 출가(出家)가 아닌가 싶다.

지금의 호두마을 부지는 1992년에 개인토굴을 짓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행터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매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호두마을을 하나하나 일구어나갔다. 손 고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1년 명상센터 호두마을을 개원했고, 2002년 호두마을을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모든 수행자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호두마을은 누가 뭐래도 손 고문의 시간과 팔과 돈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질문인줄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저는 원래 사업가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으니 저 역시나 지금 무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다고 생각해요."

손 고문은 부처님의 정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어 '우 쉼터가 사야드'가 쓴 <여름에 내린 눈>을 비롯하여 '아잔 차' 선사(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위팔람 사' 스님의 <사씨 사과다> 등등의 책을 수천 권 보셨다.

수행은 놓아버리는 공부라 했다. 아잔차 선사의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렸다. 손고문은 자신의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큰 평화를 얻었음에 틀림없다. 세상이 험기로운 수 있는 것은 그의 번득이는 지혜와 부드럽고도 따뜻한 자비가 보태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손병욱(호두마을 명상센터 설립자)

“ 놓아 버린 사람은 행복합니다 ”

중소기업 사장에서 수행도량 일꾼으로 '변신'

"위빠사나는 무한대의 이익"...법보시도 앞장

불법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 깨달으셨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는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부처님 정법을 훼손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부처님을 닮고 싶어 하고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면서 부처님께서 수행한 그 방법을 외면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손 고문의 말은 이어졌다. <대내처경>에 보면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을 건너기 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해탈하기 위한, 오

직 한 길(一乘道)이 사념처 위빠사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알고부터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달렸다. 자신이 목표로 한 도달점에 이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오히려 허망감이 밀려왔다. 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사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회사 내 전담직원까지 두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불우한 가정 120가구를 매달 지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위빠사나를 만나게 됐다.

것이며, 지금처럼 끊임없이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행복과 만족이 아닌 영원하고 안전한 행복을 누리려고 싶었지요. 귀하다고 여겼던 돈과 명예도 벗어놓고 가족을 떠나 마흔 다섯에 이곳 호두마을로 왔어요."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얏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썩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 받침대 2개) 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 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바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바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바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썩향 양초

- 1 원기둥 7.4φCm × 29Cm
- 2 돈타레 5.6φCm × 27Cm
- 3 밀 대 4.7φCm × 25Cm
- 4 1호 5.9φCm × 20Cm
- 5 2호 5.9φCm × 14Cm
- 6 3호 4.7φCm × 13Cm
-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야광 용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동신불 마패 7.4φ × 30cm
4.7φ ×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창 양초.net